

2023 상반기

함께하는 날갯짓  
더 높은 세상으로

통권89호

## 광명여성의전화는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무료상담 안내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및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우며 지역사회와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 상담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 피해자 지원 :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연계, 쉼터 연계, 타기관 연계 등
- 상담 시간 : 평일 9~18시(점심 12~13시) 전화상담(9~17시) 면접상담(전화상담 후 예약)
- 가정폭력 상담 : 02)2060-2545 · 성폭력 상담 : 02)2616-2545



# CONTENTS

## 04 1. 광명여전의 생생활동

### 04 1)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시작

- (1) 사무실 이전 기념 개소식
- (2) 정기총회

### 05 2) 회원과 함께

- (1) 제1차 정기 이사회
- (2) 자문위원 & 활동가 간담회
- (3) 여백 모임
- (4) 회원의 날 '경기여성 DMZ 평화걷기'
- (5) 신입회원 환영회

### 07 3)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향해

- (1) 제3회 광명여성의 날
- (2)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 (3) 폭력근절 캠페인
- (4)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 (5) [성명서]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 11 4) 우리들의 만남

- (1) 통합상담소 제1차 운영위원회
- (2)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간담회
- (3) 법무법인 정평 간담회
- (4)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 (5) 광명시청소년재단 간담회
- (6) 은가람빌 업무 협약식

### 12 5) 연대의 파도

- (1) 3·8 경기여성대회
- (2)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3) '성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4)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1인 시위
- (5)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
- (6) 광명시 시장 간담회
- (7) 한국여성의전화 40주년 기념행사

### 14 6) 배우고, 나누고

#### (1) 워크숍

- ①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  
강화 워크숍
- ② 이사진 워크숍
- ③ 활동가 소진방지 워크숍

#### (2) E.L.F

- ① 2023년 E.L.F 전국 신입활동가 직무연수
- ② 전국 지부 사무국장단 직무연수
- ③ 전국 지부 대표자 직무연수
- ④ E.L.F SEED 1회차

#### (3) 내부 활동가 학습

#### (4) 내부 사례회의

## 17 2. 기획기사

### 1)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야 할까요?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고은정

### 2) 성차별적 미디어의 바다, 유튜브 쇼츠

- 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가 신서연

## 21 3. 활동가들의 생생이야기

## 22 4. 상반기 상담 통계

## 23 5. 후원

발행일 2023. 07. 28

발행인 전영미

편집위원 신서연, 이다현

주소 광명시오리로 902, 404호(철산동, 금산빌딩)

T E L 사무국 02-2614-7370

상담소 02-2060-0245

F A X 02-2614-7673

E-mail kmwhl@hanmail.net

## 사무실 이전 기념 개소식

유정원

지난 1월 12일(목), 광명여성의전화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는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더불어 사무실 이전과 함께 1998년 첫 개소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뜻깊은 의미가 담긴 더욱 특별한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개소식은 본 회 활동가와 이사 및 회원을 포함한 지역 협력기관과 광명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의전화 각 지부에서 방문하여 총 74명의 축하를 받으며 개소식을 시작했습니다. 전영미 대표의 환영 인사와 함께 새로운 사무실을 소개하는 라운딩을 이어갔으며, 개소식의 하이라이트인 떡케이크와 테이블 커팅식을 진행하며 축하와 지지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지역 기관과 신년맞이 인사를 하는 연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하와 함께 광명여성의전화 활동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16명이 후원해주셨고, 신규 회원 4명 가입하여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25차 정기총회

류미숙

제25차 회원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3년 1월 12일(목) 18시 30분, 새롭게 이전한 사무실에서 56명(위임 26명 포함)의 회원이 참석하여 회원들의 자축과 응원 속에서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의 활동과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 시상식에서는 2022년 한 해 광명여성의전화를 위해 헌신하신 회원들의 공로에 대해 치하하였습니다. 상을 받으신 회원은, 우수회원상 김명숙 회원, 최혜선 회원, 최양란 회원, 소모임상은 상담원 모임, 공로상은 김삼녀 이사, 특별상으로 소식지 편집위원인 신성은 광명시민신문 편집국장, 광명시장상은 정경선 회원, 정형선 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대표 변호사인 김형석 회원(법률 자문위원)께는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2부 본 회의에서는 2022년 사업과 결산에 대한 보고와 승인,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보고와 승인, 정관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자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25번째의 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제1차 정기 이사회

김현미

4월 1일(토) 오후 4시부터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1분기 사업 및 결산보고와 2분기 주요 사업 보고 및 논의,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최양란, 최진아, 최혜선 회원을 본 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 광명YMCA, 광명YWC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 회가 대표단체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자문위원 & 활동가 간담회

김현미



광명여성의전화는 본 회를 지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명(김명숙, 김수영, 김형석, 박지영, 이성숙, 정지선, 정형선, 최양란, 최진아, 최혜선)의 자문위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화)에 자문위원&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주요 사업과 활동을 공유하고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명숙, 최양란, 최진아, 최혜선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여백모임

류미숙

광명여성의전화 ‘여백모임’(이하 ‘여백’)은 광명여성의전화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설립 초창기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모임으로 시작한 ‘여백’은 후원과 회원 친목, 본회 활동 공유를 하면서 활발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여백’은 참여 회원들에게 ‘광명여성의전화 백만 원 만들기’, ‘삶의 여백 만들기’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여백’은 14명이 참여하여 매월 말 정기 모임을 합니다.



## 회원의 날 '경기여성 DMZ 평화걷기'

김현미

광명여성의전화는 5월 20일(토), 임진각에서 '2023년 회원의 날 - 경기여성 DMZ 평화걷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여성 DMZ 평화걷기 - 정전 70년, 평화를 향한 경기여성행진' 행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DMZ 평화걷기(평화누리 자전거길 진입→장남교 방향→통일대교 남단→임진각 평화누리공원)를 약 2시간 코스의 평화 행진을 진행한 후 대동놀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회원의 날'을 경기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평화걷기 행사에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해 주신 18명의 회원과 가족, 지인,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광명여성의전화의 활동을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신입회원 환영회

김현미

6월 22일 11시부터 본 회 교육실에서 '2023년 신입회원 환영회-우리 지금 만~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환영회에는 본 회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신입회원 42명 중 12명이 참여하여 광명여성의전화에 함께 하게 된 사연과 회원으로서의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 소개 영상과 자료를 통해 1998년 창립한 때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역사와 주요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OX 퀴즈를 활용하여 광명여성의전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참석하신 회원들이 의견을 모아 회원 소모임 '들로, 산으로-총전'을 결성하여 7월부터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3회 광명여성의 날

문현희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달라고 시작된 외침은 115주기 세계여성의날을 맞았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광명YWCA,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함께 4개의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3·8광명여성의날’ 행사를 2023.3.8(수) 11시~12시 30분 철산역 로데오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 100여 명과 기관·단체, 시민이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개회사, 축사, 3·8여성선언문 낭독, ‘여성인권 존중, 장애인 인권 강화, 성평등, 여성차별 철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말하는 1분 발언, 성평등과 연대의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로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철산상업지구 일대를 돌며 참가자들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 우리가 멈춘다”, “우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세계여성의날 뜻을 알리고 보라색장미를 나누어주며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문현희

지난 5월 2일부터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을 받아 무료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해서 성인지관점을 이해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가능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 예정에 있으며 본 교육은 광명시와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 계층에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본 교육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 문화에 대한 가치관 전환 교육으로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성인권 교육을 확대하여 성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대상에 맞는 폭력예방교육 실시로 각종 폭력 범죄로부터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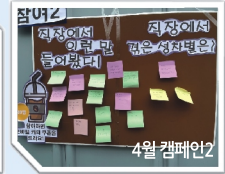


## 〈폭력근절 캠페인〉

유정원

4월 26일(수), 철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직장 내 성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직장내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며 지역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준 시민들에게는 선물 증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본 상담소의 활동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받았습니다.

6월 3일(토), 광명시민실내체육관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에서 주최한 ‘모여라! 마을수다회’에 참여하여 ‘사랑 아닌 범죄,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지역 청소년들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예방 방법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나의 건강한 연애 다짐서를 작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신서연

###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이란?

한국여성성인전화를 비롯해 전국 24개 여성성인전화 지부가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피해자 인권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진행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어린이날 기념행사

5월 5일(금),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01회어린이날 기념행사 체험부스에서 ‘다 함께 여성폭력 OUT’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OX 퀴즈와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세상은?’,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나만의 다짐’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는 포스트잇 캠페인,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날 무려 500명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국회의원 간담회

5월 17일(수), 5월 25일(목), 6월 7일(수) 총 3회에 걸쳐 양기대 의원, 양의원영 의원, 임오경 의원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더하여 현재 계류 중인 법 개정의 빠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 자료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를 참고해 주세요!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1.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태

- 1)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아닌,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여 두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목적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
| 1. 접근 제한 (0.38%)     | 2.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0.01%)     |                    |
| 3. 친권 행사의 제한 (0.00%) | 4. <b>사회봉사·수강명령 (18.77%)</b> |                    |
| 5. 보호관찰 (16.28%)     | 6. 보호시설 감호위탁 (0.00%)         | * %는 해당 호의 처분 비율임. |
| 7. 의료기관 치료위탁 (0.45%) | 8. <b>상담위탁 (27.47%)</b>      | * 대법원, 사법연감, 2020  |

- 위와 같이 **상담, 봉사, 교육**으로 가정폭력의 처벌을 대신하고 있음.

### 2.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함.

- 1)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
- 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제재 조치** 도입. 가정유지·보호 관점에서 비롯한 가정폭력 처벌법상 모든 세부 조항 개정
  - 현재 39명의 21대 국회의원인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 여성의전화 전국 지부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공동캠페인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활동을 진행 중임.
- 3) 개정 필수 주요 사항
 

-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 반의사불벌죄 삭제	-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보장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 다양한 형태의‘가족구성원’ 재규정

##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광명시 고위공직자(국장, 4급 지방서기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해당 국장이 소속 부하 직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광명시는 가해자인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광명시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광명시는 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게 한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광명시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2차 가해를 예방하라.
-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로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 성비위사건을 근절 하라.
-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 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라.
- 교육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라.

2023. 6. 12.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NCC, (사)광명여성의전화,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통합상담소 제1차 운영위원회

신서연

4/11(화) 2023년 제1차 통합상담소 운영 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상담소의 1분기 사업 진행과 2분기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기타 공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분기 열정적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는 운영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간담회

- \* 일시 : 5/22(월) 11:00
- \* 장소 :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



## 법무법인 정평 간담회

- \* 일시 : 6/2(금) 11:30
- \* 장소 :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문현희

6월 27일 15시부터 2시간 동안 광명여성 의전화 본 회의실에서 14개 기관과 유관기 관 네트워크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 각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각 유관기 관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참 석 기관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젠더 폭력 이슈에 대해 논의하 면서 촘촘한 내담자 지원과 연계를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광명시청소년재단 간담회

- \* 일시 : 6/12(월) 11:30
- \* 장소 :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



## ‘성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5/2(화) 11:00
-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 부제 : 대법원은 재심개시로 56년만의 미투에 정의를롭게 응답하라!



## 은가람빌 업무 협약식

류미숙

광명여성의전화와 ‘은가람빌’은 2023년 6월 9일(금)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미혼모·부자를 지원하는 은가람빌과 협약을 맺으면서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지원,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부초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약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자원 연계와 본회 통합상담소에서 상담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부나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주거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었습니다. 협약식 후에는 은가람빌 생활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 3·8 경기여성대회

- \* 일시 : 3/7(화) 15:00
- \* 장소 : 수원역로데오문화광장
- \* 슬로건 : ‘반여성·반노동에 맞선 거센 연대의 파도 - 반격’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 일시 : 3/4(토) 12:00~17:00
- \* 장소 : 서울광장
- \* 슬로건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1인 시위

- \* 일시 : 5/11(목) 12:00~13:00
-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

- \* 일시 : 5/16(화) 11:00
-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광명시 시장 간담회

류미숙

2023년 6월 8일 11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대표, 운영위원과 광명시장이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적극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시장과의 간담회를 자주 가지는 것으로 하였고, 이번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실상 백지화' 이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도시정비사업·재건축 등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광명시 교통대책에 대해 광명시장의 계획을 들어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김현미

6/10(토) 15:00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달려온 여성의전화의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더욱 힘차게 걸어나갈 한국여성의전화를 응원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연대단체들의 축하와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선생님에 대한 특별 시상식,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 24개 지부가 함께 만들어낸 감동의 기념 퍼포먼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행사는 '2023 페스티벌 킷'으로 이어져 다채로운 부스와 토크쇼,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화나는 세상, 놀아서 힘을 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 강화 워크숍

김현미

광명여성외전화는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 강화 워크숍’을 2월 28일, 3월 14일, 4월 1일 3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외전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을 길러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전을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강의와 자기진술, 토론, 기타 참여형 활동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회의 활동가 대상 워크숍과 1회의 이사진 대상 워크숍으로 조직의 핵심활동역량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사진 워크숍

김현미

2월 11일 토요일, 제부도에서 이사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진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회의 진행 후에는 제부도 돌레길을 걸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상담활동가 교육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탄원서 작성 실습과정, 자살을 생각하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개입 등 내담자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피해 지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활동가 소진방지 워크숍

이다현

### \* 일시 및 장소

- 1차 : 4/5(수) 광명동굴
- 2차 : 5/9(화) 오리 이원익 생가, 박물관
- 3차 : 6/9(금) 푸른수목원, 은가람빌

상근활동가들의 소진을 방지하고 에너지 충전을 통해 활동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광명알기, 문화탐방, 기관방문,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소진방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광명동굴로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5월은 오리 이원익 생가(충현박물관)에서 박물관과 고택을 둘러보며 고즈넉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에는 푸른 수목원으로 가서 상쾌한 풀내음을 맡으며 솔방 솔방 산책을 했습니다. 그늘진 정자에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도 가졌죠. 미혼모 지원기관인 은가람빌로 가서 업무 협약식을 맺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활동가들은 매달 소진방지 워크숍에서 기분 좋은 활동을 하며 소진된 기운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 E.L.F란?

‘엘프’(E.L.F)

**활동역량(Empowering), 여성주의 리더십(Leadership), 가치와 정체성(Feminism)**

‘엘프’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여성주의에 기반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여성운동의 비전을 세워나가고, 변화를 꿈꾸며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와 시민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E.L.F 전국 신입활동가 직무연수

- \* 일시 : 3/29(수) ~ 3/31(금)
- \*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 2023년 전국 지부 사무국장단 직무연수

- \* 일시 : 4/19(수) ~ 4/20(목)
- \* 장소 : 유진인재개발원



### 2023년 전국 지부 대표자 직무연수

- \* 일시 : 4/20(목) ~ 4/21(금)
- \* 장소 : 유진인재개발원



### 2023년 E.L.F SEED

- \* 일시 : 5월 30일(화) 10:00
- \* 장소 :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
- \* 주제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영국을 중심으로



## 내부 활동가 학습

김현미



광명여성의전화는 매년 활동가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정례화하여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활동가학습은 활동가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준비하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여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매월 1회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세분석 및 여성운동의 방향’,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와 피해자 지원내용’, ‘에니어그램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 및 타인의 이해 인간관계 개선’, ‘MMPI 성격 및 심리이

해’, ‘페미니즘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살을 생각하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개입’의 주제로 학습하였습니다.

### 〈내부 사례회의〉

지속적인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의료비 지원 및 타 기관 연계 등을 논의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회차	일자	내용	참석자
1	2/20(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전영미, 조희진 (총 7명)
2	3/06(수)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총 5명)
3	3/20(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총 5명)
4	4/3(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총 5명)
5	4/17(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이다현, 전영미 (총 7명)
6	5/3(수)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류미숙, 유정원, 이다현 (총 3명)
7	5/16(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이다현, 전영미 (총 7명)
8	6/8(목)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이다현, 전영미 (총 7명)
9	6/20(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이다현 (총 5명)
10	6/22(목)	성폭력 의료비 지원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총 5명)
11	7/3(월)	내부사례회의 및 상담방향 논의	김현미, 류미숙, 문현희, 신서연, 유정원, 이다현, 원다영 (총 7명)



##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야 할까요?

고은정(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광명여성의전화 회원)

“제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떠나야 돼요? 제가 맞았는데, 왜 맨날 내가 도망가야 되냐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3화 서유리 대사 중)

**함께 생활(점유)하고 있는 집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야 할까요?** 당연히 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떠나고, 피해자가 남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먼저 따져보겠지만, 집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삶의 기반임이 소유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일상과 장소를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때린 사람이 떠난다(Wer schlägt, der geht!)**”라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원 거주지에서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점유권을 먼저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일부 주(state)에서는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주거를 생존자의 재산으로 허가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택 손상 복구 또는 이사 비용 등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것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축적된 국외 선행연구들은 피해 여성에게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폭력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고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생존권을 침해하였는지가 주거권 확보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정책을 통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현행법 즉시 체포, 가해자 퇴거?접근금지 조치 및 감호위탁 처분 등이 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거 조치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시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중인 상황에서 전·현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에는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얹혀 있습니다.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탈출’이 최선인 상황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보호·주거지원시설 외의 주거 선택지도 부족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 주어졌지만, 보호·주거지원시설 퇴소 후 2년 이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급량의 2%도 되지 않아 물량이 매우 적고, 또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경쟁해야 하는 ‘신청 기회’에 불과합니다. 구조도 절차도 복잡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올라가기 어려운 투명한 사다리에 가깝습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에게 벗어나서 “내 한 몸 의지할” 안정적인, 적절한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난 1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독립적인 주거를 확보한 경우는 약 23%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난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가구 내 소득을 전유해 온 전·현 배우자의 경제적 착취로, 가해자가 떠남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퇴소 후 주거기준이 미달하는 공간으로 진입하거나,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며 잦은 주거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기간 내 한국 사회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만큼의 목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주거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과 반복적인 주거 이동으로 경제적·심리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과 동반 아동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익숙하고 편한 자신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속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광명시는 어떨까요? 2022년 한해 991건, 올해 상반기 660건의 광명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상담 수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시민이 폭력이 발생했고,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감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폭력에 노출되거나, 살 곳을 찾지 못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과 관련 정책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먼저 공감하고 노력할 부분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경찰의 가해자 퇴거 및 감호 위탁 등 임시조치가 적극 이행되어야 합니다.** 주거 상실은 가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머물고, 피해자가 비자발적인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가해자의 추적 방지를 위해 신분증, 통장 등 개인 서류를 챙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드시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벌 의사가 없어 귀가 조치된 경우, 가해자가 퇴거 조치된 경우 등은 거주지 인근의 예방 순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과 함께 충분한 쉼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보호시설이 되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관련법의 협소한 기준(1인 6.6㎡)을 넘어서는 개인·가구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적극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는 보호시설 퇴소자 또는 시설 입소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를 적극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으로 주거사다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3, 4)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으로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의 적극 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법(제7조)에 따라 의료·교육기관, 공무원, 교습소의 교습자나 직원, 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은 신고의 무자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위기 상황은 소득 상실과 질병만이 아니라 학대와 폭력도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방관하는 것은 가해자의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살 곳’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야 할까요?**

#### ※ 참고자료

고은정(202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 이동 경험 및 맥락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출처: <http://www.riss.kr/link?id=T16023624>)  
 광명여성의전화 상담통계(2022~2023). 광명여성의전화 내부자료.  
 한국여성의전화(2023). 2022년 분노의 페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출처: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76840](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76840))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해자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보 (QR 코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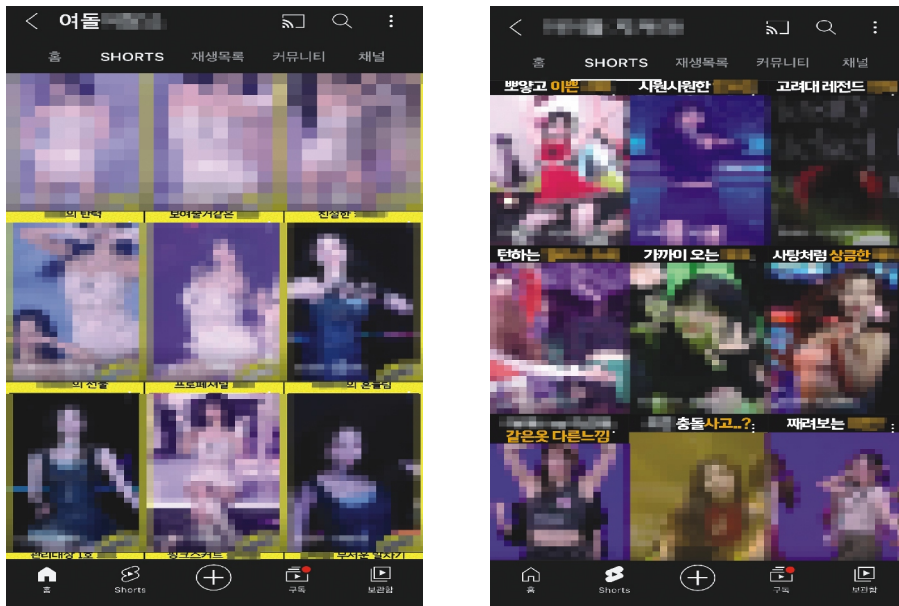
## 성차별적 미디어의 바다, 유튜브 쇼츠

신서연(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가)

유튜브 사용자 수 4138만 명, 대한민국 인구 약 81%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sup>1)</sup> 그 중심에는 ‘쇼츠’가 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 콜랩아시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 조회 수의 80% 이상이 유튜브 쇼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유튜브 쇼츠란 1분 이하의 짧은 영상이다. 하단으로 드래그하면 영상들이 무작위로 재생되고, 시청자의 시청기록 등을 분석하여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을 알아서 재생해 준다.

글쓴이는 유튜브를 통해 ‘아이돌’ 영상을 자주 시청한다. 그 때문인지 쇼츠에도 아이돌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새 부턴가 눈살이 찌푸러지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이다. 성적 대상화란 여성을 ‘남성의 만족을 위해 소비되는 몸’으로서만 대하는 것, 인격체가 아닌 성적 도구로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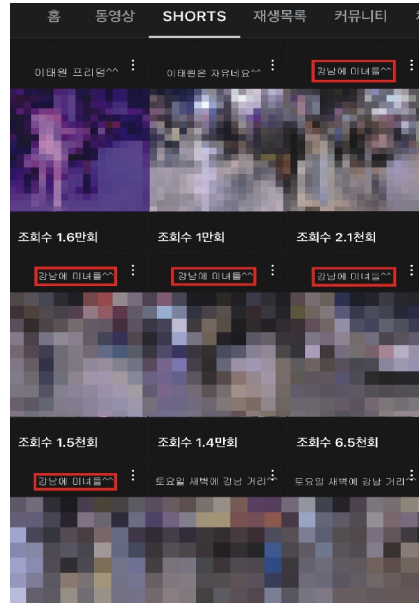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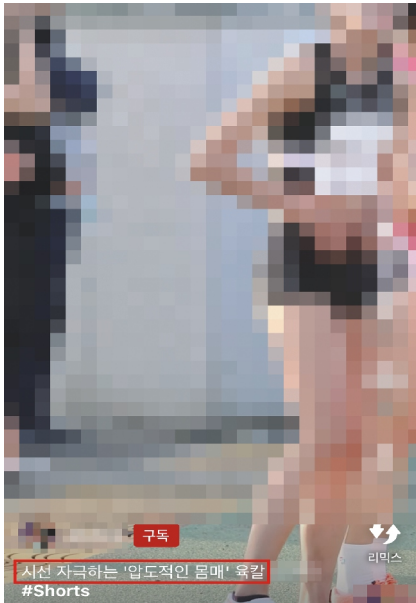


[사진 1, 2 :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영상 목록]

사진 1, 2와 같이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들이 쇼츠에 등장했다. 이러한 채널들이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편집 방식이다. 영상을 슬로 모션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는 편집 방식을 사용하여 성적 대상화한다. 둘째, 제목 설정이다. ‘단추 지퍼랑 싸우는 ○○○’, ‘보여줄 거 같은 ○○’, ‘혀 내미는 ○○ 굉장하다’ 등의 성희롱하는 제목으로 설정하여 성적 대상화한다.

아시아경제, 「모바일인덱스 “유튜브, 1인당 월 평균 32.9시간 사용…10대 □이 가장 오래 써”」,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1210195659319>)  
nate 뉴스, 「“유튜브 전체 시청자 조회수 88%는 ‘쇼츠’에서 나와”」,  
(<https://news.nate.com/view/20230201n10654>)  
우성범, 「한국판 성적 대상화-가해 척도타당화 연구」, 2023, 575면에서 재인용.

영상 댓글 창은 해당 여성 아이돌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다. ‘○○○ VS △△△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두 여성 아이돌의 몸매를 폄평하는 영상의 댓글을 보면, ‘없는 ○○○이나 아님 너무 처진 △△△냐’, ‘역시 커야’, ‘묵직하다’ 등의 성희롱 댓글들이 지배적이다.



[사진 3, 4 : 여성 운동선수를 성적 대상화한 영상,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들]

성적 대상화 대상은 아이돌뿐만이 아니다. 쇼츠에서는 운동선수부터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반인 여성까지 ‘모든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된다.

성적 대상화된 여성은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외모나 성적인 매력, 타인의 만족을 위한 성적인 몸 일부로서 축소되는 비인간화된 경험을 하게 된다.<sup>4)</sup> 또한, 신체적 수치심과 언제 어디서 자신의 외모가 응시되고 평가 당할지 모르는 외모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심리적 경험들로 인해 섭식 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까지 겪게 될 수 있다.<sup>5)</sup>

쇼츠 사용자는 쇼츠의 ‘무작위성’, ‘알고리즘’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성차별적인 영상들에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게 되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

영상들은 제재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신고를 해도 삭제 처리조차 안 해주는 실정이다. 글쓴이가 신고한 총 19건의 영상 중 삭제된 영상은 단 2건뿐이었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도구가 아니다. 유튜브는 성차별적인 영상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이에 대하여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자들이 성차별적인 영상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 사용자들 또한 성적 대상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해야 한다. 유튜브가 성평등한 미디어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4) 앞의 논문, 같은 면에서 재인용.

5) 박진주·이영순,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대상화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3호, 2021, 1203면에서 재인용.



## 광명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의 생생이야기



활동가들이 담당했던 사업, 참여했던 연대활동 등 광명여전에서의 뜻깊었던 활동에 대해 생생한 후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 전영미 대표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소중한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제게 가장 의미있는 일은 회원 한분 한분께 전하드려 현 활동을 공유하고, 소중한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힘써주시는 활동가들과 뜻을 같이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 류미숙 소장

반갑습니다.^^ 통합상담소 소장 류미숙입니다. 어느새 2023년도 반년이 훌 지나버렸습니다. 올해는 광명여성의전화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 활동을 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회원, 지역사회 후원과 관심, 그동안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노고가 쌓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3년 여의 코로나-19를 무사히 넘기고 '회원들과 함께 하는 광명여성의전화'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는 '후원의 밤', '송년회', '폭력근절캠페인', '생존자 말하기', '여성인권영화제', '성평등 계단타운'... 광명여성의전화가 진행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 함께해요!!!

### 김현미 활동가

안녕하세요. 김현미 활동가입니다. 올해는 이전한 새로운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개소식, 간담회, 회원의 날, 신입회원 환영회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의 방문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광명여성의전화의 역사입니다.

### 문현희 활동가

안녕하세요. 문현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3.8 세계여성의날 115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3차 광명여성의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대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새삼 뿌듯했던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여성의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던 저에게 당당한 여성 활동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인권 운동에 뜻을 동참 할 수 있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신서연 활동가

안녕하세요~ 신서연 활동가입니다. 저는 작년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홍보물의 일환으로 고슴도치 캐릭터 '광연이'를 그렸던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당시 고슴도치를 키웠던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고슴도치를 그려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손수건과 스티커 도안을 그렸었습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 그리고 강사님들, 회원님들, 광명여전 선생님들 등 광연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귀엽다, 잘 그렸다며 칭찬해주셨던 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연이를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유정원 활동가

안녕하세요. 유정원 활동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광명 지역의 여성단체이자 상담소인 광명여성의전화에서 성평등을 위한 뜻깊은 활동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소 회계 담당자로 의뢰비 지원을 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지역을 넘어 여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다짐하며 활동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같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원과 지원도 함께해주세요!

### 이다현 활동가

안녕하세요, 활동가 리다입니다. 저는 6월 10일 토요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국여성의전화 40주년 기념식 페스티벌 킷'에 참가했던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념식에서 전국 스물네개 지부의 깃발들이 나뉘기던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모두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객체들이 여성인권운동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뒤흔든 것처럼 다양한 색과 크기의 깃발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그 자리의 저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기회가 되시면 연대의 장에 오셔서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상반기 상담통계〉

(단위: 건)

구분	총 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상담									
				소계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 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1월	90	59	27	4	0	0	0	2	0	0	2	0	0
2월	87	70	7	10	0	7	0	0	0	0	2	0	1
3월	160	130	21	9	0	2	0	0	0	0	1	0	6
4월	118	88	12	18	0	7	2	0	0	0	1	0	8
5월	150	107	18	25	0	7	3	0	1	1	4	0	9
6월	240	206	16	18	0	8	0	0	3	1	1	0	5
누계	845	660	101	84	0	31	5	2	4	2	11	0	29

## 〈후원 안내〉

광명여성의전화는 회원들의 회비와 참여로 운영됩니다. 일상 속 여성주의 실천 및 여성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CMS 회비 납부를 신청하세요! 출금일은 매달 25일이며,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달 10일에 소급되어 출금됩니다. 후원금은 법인세법 18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차별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명여성의전화와 함께해 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099-01-018174(광명여성의전화)

\* 후원 관련 문의 : 사무국 02-2614-7370



▶ **정회원 명단 (2023년 1월 ~ 6월)**

가문홍	강미숙	강미자	강연재	강은숙	강은아	강주례	강희정	고성수	고은정	곽 온	권구문
권민경	권예성	권용주	권윤자	권은미	권태웅	권태진	기애란	기희숙	김건희	김경미	김경혜
김경희	김기윤	김덕례	김도하	김명숙	김미경	김미화	김삼녀	김성자	김세경	김세일	김수연
김수영	김영숙	김영일	김영자	김예지	김영진	김윤숙	김은희	김재석	김지숙	김지오	김진필
김학운	김해중	김현미	김형석	김혜경	김혜정	김효은	남천희	노용래	류미숙	문현희	박니나
박미경	박미라	박미정	박보경	박상봉	박성숙	박성은	박애란	박영신	박옥화	박은경	박인숙
박재한	박종기	박지영	배명옥	배옥순	서기남	서성민	서영심	서유리	소용희	송은서	신서연
신성은	신윤철	신준옥	신현정	신효경	심중식	안인숙	양윤정	양이원영	엄선민	엄지연	염건령
오세임	오영민	오화선	우옥남	원범재	유명자	유서연	유성희	유영미	유정원	윤미리	윤복희
윤순희	이건실	이다연	이다현	이미경	이미주	이미혜	이보용	이상진	이선미	이선숙	이성숙
이소은	이수지	이수지	이숙영	이순덕	이순례	이승부	이승휘	이연숙A	이연숙B	이연주	이영미
이은영	이은혜	이인숙	이인희	이종기	이지은	이진영	이형덕	임무자	임삼례	임선희	임송희
임수진	임영숙	임영주	장경애	장명숙	전근배	전미라	전선미	전영미	전은숙	전점중	정경선
정미향	정순옥	정애숙	정연순	정영애	정지선	정형선	조옥순	조현제	조희정	조희진	지미선
진수경	진영임	차미경	최금숙	최미선	최미영	최영란	최진아	최혜선	최혜진	최효정	하숙례
한국현	한미경	한은진	허경숙	허윤정	허정호	황소영	황은영	황재훈	황정환		

▶ **상반기 신입회원 명단**

권태웅 전선미 엄선민 이미경 신성은 권윤자 김재석 전근배 정순옥 박인숙 김미경 이순례  
 문현희 김성자 장경애 최효정 김영일 박보경 이다현 권용주 신윤철 이인희 박옥화 김용진  
 양이원영 허경숙 박성숙 이종기 조현제 김기남 정상희

▶ **물품후원**

권태웅(전화상담실 책상 2개)  
 최진아(커피메이커, 종이컵수거기)  
 강은숙, 곽온, 권예성, 김삼녀, 소용희, 전영미(파티션 8개)  
 법무법인 정평(전자렌지 1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냉장고 236L 1대, 토너 40개, 에멀전 40개, 앰플 60개, 마스크팩)  
 광명인쇄(상담소 리플렛 50매, 소/대봉투 주소수정 라벨지 240장 제작)  
 광명종합사회복지관(선크림 200개)  
 철산동고기집(떡 1말)



발 행 인 전영미

편집위원 류미숙, 신서연, 신성은, 전영미, 최양란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4호(철산동, 금산빌딩)

전 화 사무국 02-2614-7370, 상담소 02-2060-0245

이 메 일 kmwhl@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mwhl.org>